



JUNE

Contents



Recently Released

DaBaby - <GHETTO SUPERSTAR: (THE INTRO)>
Rome Streetz X Wavy Da Ghawd - <Buck 50>
Yaya Bey - <Ten Fold>
Gunna - <One of Wun>
Conway the Machine - <Slant Face Killah>
Ghostface Killah - <Set The Tone (Guns & Roses)>
Childish Gambino - <Atavista>
wolfacejoeyy - <Valentino>
Rapsody - <Please Don't Cry>
twenty one pilots - <Clancy>

Full-Length Album Review

Dillom - <Por Cesarea>
Kamasi Washington - <Fearless Movement>
Chief Keef - <Almighty So 2>
Mach-Hommy - <#Richaxxhaitian>

Classic Album Review

Kali Uchis - <Isolation>
Black Moon - <Enta Da Stage>

Featured

GTBSG¹¹
OVOXO
1994 #4

Editors' Picks

Trent Reznor & Atticus Ross - <Challengers (Original Score)>
Destroy Lonely - <If Looks Could Kill>
CONNIE - <Hi_TEK MZK VOL. 1>
Billie Eilish - <HIT ME HARD AND SOFT>
Young Fathers - <Heavy Heavy>
Hackle - <Gunsmith Tha Mixtape>

DaBaby

- <GHETTO SUPERSTAR: (THE INTRO)>

2024.05.03



2021년 마이애미 콘서트에서의 호모포비아적 발언 이후, 다베이비(DaBaby)는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기를 겪기 시작했다. 주변 동료들이 연이어 등을 돌렸으며 콜라보 기업들과의 계약이 파기되었고, 싱글 차트에서도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였다. 동시에 음악의 작품성 역시 추락하기 시작했다. 논란 이후 발매된 3장의 작업을 모두 이유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으며, 특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역시나 그의 새로운 EP 작업물 <GHETTO SUPERSTAR: (THE INTRO)>는 이전 앨범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단점만을 가득 머금은 작품이 되었다. 모든 곡이 프리스타일로 제작되었나 싶을 정도로 유사하고 반복적인 플로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사 역시 그가 지금껏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피로감만이 누적된다. 다베이비의 작업물마다 항상 크게 두드러졌던 단점은 바로 비트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근거 없는 자아도취에 빠진 래핑을 한다는 점에 있었다. 본작은 비트 초이스도 상당히 불만족스러우나, 그 단점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베이비는 분명 하드웨어가 상당히 훌륭한 플레이어다. 이번 작업물에서도 래핑 자체만을 보자면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베이비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인물은 그를 잘 이끌어줄 훌륭한 프로듀서이지 않을까.

TRACKS

1. DONE TRYING / 2. GHETTO SUPERSTAR FREESTYLE / 3. JUDY

by Editor 자카

RECENTLY RELEASED

Rome Streetz & Wavy Da Ghawd

- <Buck 50>

2024.05.03



그리젤다 레코즈가 작금의 동부 힙합 씬에 새롭게 깔아놓은 판 위, '랩 퍼포머'로서 근래 가장 잘 뛰노는 테크니션은 루 스트리츠(Rome Streetz)일 것이다. 이 게임에 경쟁할 자격을 얻으려거든 어정쩡한 스킬을 유별난 개성만으로 수습하려는 꼼수는 소용없다. 정통적 작법에서 오는 탄탄함과 신세대에게 요구되는 신선함을 동시에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과포화 상태의 시장 속에서 정작 수준급의 도전자들을 찾기가 어렵고, 그렇기에 우리의 기대를 여전히 상당수 그리젤다로부터 채우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루의 품격은 이처럼 까다로운 트렌드를 가장 엔터테인먼트스럽게 승화시키는 멋에 있다. 그를 위해선 이를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프로듀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고로 DJ Muggs, Futurewave, Big Ghost Ltd 등의 든든한 조력자들이 거쳐갔다. <Buck 50>에선 Wavy Da Ghawd이 키를 맡았다. 짧은 EP의 구성은 루의 장기에 충실히 부합한다. 일관된 질감 하에 초반의 드럼리스('Ball of Soft', 'Runnin It Up', 'Why Is Water Wet')와 보다 고전적인 후반의 정통 봄뱁('Ya Understand', '92 Mike', 'Saliva')으로 딱 3곡씩 양분돼있다. 이를 아울러 청자를 짜릿한 오락의 영역으로 이끄는 것은 결국 루의 랩이다. 유연한 플로우와 더불어 정석의 모든 것을 갖춘 그의 라이밍과 워드플레이의 향연에 어김없이 귀가 즐겁다. 짧은 구성에 양적으로 아쉬울 새라 질적인 재미로 이를 확실하게 상쇄시키는 그의 쇼맨쉽은 과연 보증서라 할만하다.

TRACKS

1. Ball of Soft / 2. Runnin It Up / 3. Why Is Water Wet / 4. Ya Understand / 5. 92 Mike / 6. Saliva

by Editor 감상주의

Yaya Bey - <Ten Fold>

2024.05.10



야야 베이(Yaya Bey)의 5번째 스튜디오 앨범 <Ten Fold>는 아버지 Ayub Bey의 죽음에서 비롯된 슬픔과 상실을 녹여낸 순간들을 포착한 셀프 스냅샷이다. 장례 비용으로 인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1년 동안 특별한 계획 없이 제작된 앨범이 바로 이 작품이다. 경제적으로 겪었던 어려움과 감정적 불안, 실패로 돌아간 사랑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데 —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앞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통 튀는 분위기로 그려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중고품 매장에서 화려한 물건을 찾는 내용의 "east coast miami", 아버지에 대한 애도를 소울풀하게 풀어낸 "the evidence", 억제된 오르간 사운드 위에서 자신의 부담감과 대면하는 "crying through my teeth" 등등. 대부분의 트랙들은 이지리스닝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Ten Fold>는 야야 베이의 불안정했던 1년을 섬세하고 진정성 있게 담아낸 탁월한 작품이다, 그녀 커리어의 이정표이다.

TRACKS

1. crying through my teeth / 2. the evidence / 3. chrysanthemums / 4. sir princess bad bitch / 5. east coast mami / 6. chasing the bus / 7. all around los angeles / 8. slow dancing in the kitchen / 9. so fantastic (feat. Grand Daddy I.U.) / 10. eric adams in the club (feat. Exactly) / 11. me and all my niggas / 12. iloveyoufrankiebeverly / 13. career day / 14. carl thomas sliding down the wall / 15. yvette's cooking show / 16. let go

by Editor 자카

RECENTLY RELEASED



2024.05.10

RICO법으로 인해 와해된 YSL레코즈의 상황을 많은 이들이 주목했다. 해당 레이블의 톱스타 거너(Gunna)가 예상보다 빨리 풀려나자, 이는 곧 그가 '스니치'가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게 되었다. 하지만 거너의 전작 <a Gift & a Curse>는 이런 의혹을 딛고 어마어마한 세일즈를 자랑하며 그를 YSL의 스니치가 아닌 YSL의 기둥으로 다시 일어서 수 있게끔 만들었다. 거너는 그런 본인의 상황을 과시하는 듯, 본작의 제목을 <One of Wun>이라 명명한다. 그가 내세우는 장점, 그리고 청자들이 그의 음악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마치 감정이 결여된 듯한 차가운 톤의 보컬과 랩으로 이어나가는 유려한 플로우다. 본작에서도 그 장점은 확실히 드러난다. 거너는 자신의 랩 피지컬을 한껏 드러낸 트랙으로 오프닝을 열며, 후에는 피아노를 활용한 서정적인 트랙, 애틀랜타의 트랩보다 더 멜로디컬하고 담백한 사운드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결의 사운드를 담아냈다. 다만, 긴 길이의 러닝타임이 발목을 잡고 말았다. 세일즈를 위해 1시간에 가까운 앨범을 만들어낸 거너의 선택은 새로운 시도를 벗어난 트랙들을 필러 트랙으로 보이게끔 만들었다. <One of Wun>이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8위를, 힙합/랩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거너가 의도하고자 한 바는 이뤄냈지만, 결국 세일즈를 벗어난 면에서의 의도는 알 수 없기에 아쉬움 또한 남았다.

TRACKS

1. collage / 2. one of wun / 3. neck on a yacht / 4. whatsapp (wassam) / 5. hakuna matata / 6. prada dem (feat. Offset) / 7. treeh / 8. on one tonight / 9. back in the a / 10. trio / 11. still prevail / 12. blackjack / 13. \$\$\$ (feat. Normani) / 14. clear my rain (feat. Leon Bridges) / 15. conscience / 16. the time / 17. let it breathe (feat. Roddy Ricch) / 18. life's changing / 19. today i did good / 20. time reveals,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by Editor SongChico

Conway the Machine

- <Slant Face Killah>

2024.05.10



나는 스스로가 콘웨이 더 머신(Conway The Machine)의 음악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앨범, 그러니까 <Slant Face Killah> 덕택에 알게되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의 음악이 더 좋아졌다거나 더 나빠졌다는 말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다만 이 앨범에서 음악을 대하는 그의 진짜 태도를 보아버리고 말았다. 내 생각에 그는 진중한 자대로 21세기의 블랙 황금기를 열려고자 하는 것도, 엄청난 음악적 성과를 거두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콘웨이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스스로가 자신이 만든 음악적 이미지 그 자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한 쪽으로 치우친 입, 텁텁하게 쏘아붙이는 시비조의 랩. 물론 진짜 삶 속에서 우러나온 것들이지만 그는 그것들을 모두 하나의 이미지로 사용한다. '돌아간 입 얼굴의 살인자'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콘웨이의 얼굴과 구불구불한 궤도의 비트, 읊조리다가 금새 발진해서 청자를 끌어들이는 랩이 그를 방증한다. 그리절다는 이렇게 특유의 인장을 음악 속에 새기는, 다소 작위적인 연출에 능한 편이다. 음악적으로 독특한 부분이 전무한 이 앨범에, 나는 왜 또 한번 속수무책으로 이입하게 되는 것일까.

TRACKS

1. Despertar / 2. Mutty / 3. Give & Give / 4. Milano Nights, Pt. 1 / 5. Kin Xpress / 6. Meth Back! / 7. Ninja Man / 8. Vertino / 9. Ten / Rya Interlude / 10. Dasani / 11. Raw! / 12. Surf & Turf / 13. Karimi / 14. The Red Moon in Osaka

by Editor Indie Aisle

RECENTLY RELEASED

Ghostface Killah

- <Set The Tone (Guns & Roses)>

2024.05.10



Wu-Tang의 맹주, 90년대의 아우라, 내겐 고스트페이스 킬라(Ghostface Killah)의 음악을 들을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온의 양가감정이 하나 있다. 저 참을 수 없는 골든에라의 기시감과 향수들. 이 사람의 음악은 어떤 시대의 공기를 마시건 매번 똑같은 감촉의 음형들만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Supreme Clientele>와 <Ironman>은 일종의 경전이나 저주다. 킬라가 아무리 그 인력권을 벗어나려 해도 귀신같이 찾아와 옆에 머무는 앨범. 나는 이 점이 너무 지겨워서 한동안 그가 철 지난 동부 힙합밖에 할 줄 모르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혹은 킬라의 음악이 현 세대와 완전히 모순된 것이라고 여겼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가 어떤 앨범을 내던지 간에 그 둘을 잊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2024년의 <Set The Tone (Guns & roses)>라도 마찬가지로. 이 앨범은 놀라울 정도로 현 시대를 부인하고, 90년대의 황금기를 바라보다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블랙의 석양 아래서 탄식을 내뱉는 작품이다. 말할 것도 없이 킬라의 랩은 Plugg와 Rage를 고집하며 약에 절어있는 세대를 마구 짓밟을 정도로 강인하다. 그러나 이 앨범은 그 속에 Nas와 Jay Z가 21세기에 내딛은 한 발짝이 없다. 킬라의 턴테이블 잡음과 스킷, 낮은 음질은 현 세대에겐 외면을, 옛 세대에겐 <Supreme Clientele>, <Ironman>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불러오게 할 것이다. 때로 나는 이 점이 서글퍼진다. 그러나 이 앨범은 은밀하게 향유되어야만 한다. 나와 당신이 추억하던 90년대의 낭만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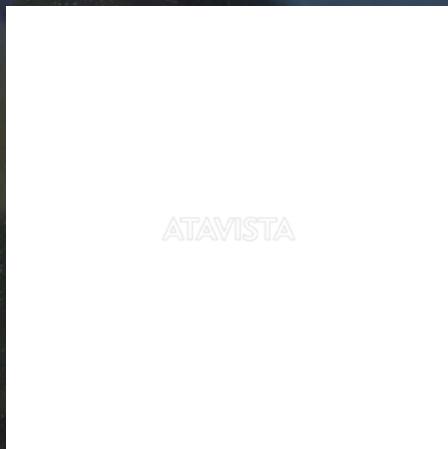
TRACKS

1. 6 Minutes (feat. Jim Jones, Sheek Louch, HARL3Y) / 2. Pair Of Hammers / 3. Skate Odyssey / 4. Scar Tissue / 5. Kilo In The Safe (feat. Iceman) / 6. Skit 1 / 7. No Face / 8. Champion Sound (feat. Beniton) / 9. Cape Fear (feat. HARL3Y) / 10. Skit 2 / 11. Plan B (feat. HARL3Y) / 12. Bad Bitch (feat. Trevor Jackson) / 13. Locked In (feat. Bee-B) / 14. Skit 3 / 15. Touch You (feat. Shaun Wiah) / 16. Shots (feat. HARL3Y) / 17. Trap Phone (feat. Chucky Hollywood) / 18. Outro Skit / 19. YUPPI! (feat. Remy Ma)

by Editor Indie Aisle

Childish Gambino - <Atavista>

2024.05.13



차일디쉬 감비노(Childish Gambino)의 5번째 정규 앨범이자 그의 전작 <3.15.20>의 리마스터반이기도 한 <Atavista>가 발매되었다. <3.15.20>는 <Camp>의 뒤를 잇는, 그의 커리어 로우라는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다. 과도할 정도로 예술적이게 보이려고 한 까닭에 지나치게 난잡해져 버렸다는 것이 이유인데, 확실히 감비노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왜곡된 보컬과 프로덕션마저도 부담스럽게 다가오던 때가 비일비재했다. 반면 새로이 마스터된 <Atavista>는 덜어야 할 것을 덜어내고 추가해야 할 것을 적절히 추가해낸, 아주 깔끔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전작의 깊이 없이 훌뿌려져 있던 악기 연주 역시 더욱 정교해졌으며,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피처링 게스트의 퍼포먼스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탄탄한 페이스를 놓지 않고 밀고 나간 "Atavista"와 "The Violence", 감비노의 예술성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Final Church"가 특히 돋보인다. <Atavista>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작품일지언정, 감비노의 앞으로의 비전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한 작품으로 보인다. 리마스터 앨범의 매우 모범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TRACKS

- 1. Atavista / 2. Algorhythm / 3. Time (feat. Ariana Grande) / 4. Psilocybae (Millennial Love) (feat. 21 Savage, Ink, Kadja Bonet) / 5. To Be Hunted / 6. Sweet Thang (feat. Summer Walker) / 7. Little Foot Big Foot (feat. Young Nudy) / 8. Why Go To The Party / 9. Human Sacrifice / 10. The Violence / 11. Final Church

by Editor 자카

RECENTLY RELEASED

wolfacejoeyy - <Valentino>

2024.05.15



2010년대 후반, 드릴은 UK 드릴을 내세워 스타들을 탄생시키고 힙합 팬들을 사로잡는 사운드가 되어 순식간에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대표적인 스타 Pop Smoke의 안타까운 요절과 획일화된 사운드로 인해 UK 드릴은 '한물간 장르'로 취급되며 샘플 드릴, 저지드릴에 그 자리를 빼앗겼다. 유페이지(wolfacejoeyy)는 그러한 샘플/저지드릴에 알앤비가 가진 감성을 더해내 독특한 위치를 고수하는 아티스트로, 본작의 프로토타입이 된 전작부터 선공개 트랙까지 기대감을 더해갔다. 자신에게 걸린 기대감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프로듀서 Cash Cobain의 움직임에 따라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Sexy Drill이 점점 더 큰 파이를 차지하며, 유페이지의 사운드도 이제는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들린다는 시기적 도움을 받았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타이밍에 등장한 본작이 가진 결은 유페이지의 전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많은 방면에서 발전했다. 특히나 멜로디를 다루는 방식은 이 앨범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매 순간, 자신의 음색을 뽐낼 수 있는 독창적인 탑라인을 쌓아 나간다. 나아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곳은 가사다. 단순히 가사를 채우기 위해 여성과 돈, 명품을 나열했던 그도 어느덧 사랑을 알아가고 떠나간 연인을 그리기도, 새로운 사랑을 찾아 클럽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하는 인물이 되어 성장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다. 시기상 씬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유페이지는 여전히 드릴 씬을 바꿔 나가고 있는 래퍼이자, 팝스타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유망주로 남아있다.

TRACKS

- 1. Stop Trippin Bout Girls U Don't Know / 2. WYA / 3. Solar / 4. I Know / 5. Factime Interlude / 6. Cake / 7. Talk Less (with Rueben Aziz) / 8. Don't Be Dishonest / 9. Who Me? / 10. Double Tap / 11. Touch the Moon / 12. Alexis Texas / 13. Tiffany

by Editor SongChico

Rapsody - <Please Don't Cry>

2024.05.17



TRACKS

1. She's Expecting You (feat. Phylicia Rashad) / 2. Marlanna / 3. Asteroids / 4. Look What You've Done / 5. DND (It's Not Personal) (feat. Bee-B) / 6. Black Popstar (feat. Dixson) / 7. Stand Tall / 8. That One Time / 9. 3:AM (feat. Erykah Badu) / 10. Loose Rocks (feat. Alex Isley) / 11. Diary Of A Mad Bitch (feat. Bibi Bourelly) / 12. Never Enough (feat. Keznamdi, Nicole Bus) / 13. He Shot Me / 14. God's Light / 15. Back In My Bag / 16. Niko's Interlude (feat. Niko Brim) / 17. Raw (feat. Niko Brim, Lil Wayne) / 18. Lonely Women / 19. A Ballad For Homegirls (feat. Baby Tate) / 20. Please Don't Cry Interlude (feat. Phylicia Rashad) / 21. Faith (feat. Mantragold) / 22. Forget Me Not (feat. Amber Navran, Phylicia Rashad)

빠르고 격하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수많은 래퍼들이 휘둘리는 가운데, 베테랑 래퍼 랩소디(Rapsody)는 외려 내면으로 파고들어 중심을 잡고자 했다. ‘본연의 너는 누구야?’라는 물음으로 운을 떼는 그녀의 정규 4집 <Please Don't Cry>. 랩소디라는 가명에 가려진 인간 말라나 에반스의 자아를 탐구하는 관찰기와 같다. 그녀는 실질적인 오프닝 트랙 “Marlanna”를 통해 자기애와 혐오, 독립성과 외로움, 성취와 의심 등의 대립적 혼란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핵심이라 제시하며, 이후 트랙들을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 대다수의 곡은 단단히 자리 잡은 철학을 상기하는 데에 쓰인다. 신분 위에 인격이 있다 주장하는 “Look What You've Done”과 무분별한 타인의 요구에 순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DND (It's Not Personal)”가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약자 멸시, 폭력, 질병 등 재해의 여파를 그린 “He Shot Me”나 “Loose Rocks” 같은 경우 해답이 아닌 대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무력함을 담아내기도 한다. 특유의 은유 가득한 작법으로 묘사한 아린 개인사는 줄곧 견지해 온 굳센 믿음이 필연적 불합리 앞에서 무너지는 비극을 서술하나, 랩소디는 그럼에도 무지하기보단 알고 눈물 흘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정서적이나 감상적이지 않은 근거를 토대로 건축해 낸 주제 의식은 이전 작품들보다 풍요로워진 사운드와 더불어 <Please Don't Cry>를 랩소디의 매그넘 오퍼스로 꼽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

by Editor denim

RECENTLY RELEASED

twenty one pilots - <Clancy>

2024.05.24



장르의 혼합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카오스에 수놓아진 장대한 서사의 결말. 9년 전, 아서 밀러의 희곡에서 따온 이름을 가진 듀오 twenty one pilots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내면의 불안정성을 상징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정신적 결함을 상징하는 <Blurryface>를 통해 시작을 알린 이 대서사시는 주인공이자 블러리페이스에게서 도망가는 인물인 <Clancy>의 이름으로 그 마침표를 찍는다. 끊임없이 이어온 다양한 장르의 차용은 인디 락과 팝 랩의 혼합이라는 그들의 특기로 이어지며 이에서 올려 퍼지는 저항의 공명은 조금은 뻣은 진행 속에서도 청자의 살결을 뚫어 심장까지 와닿는 듯하다. 프로듀싱과 송라이팅의 퀄리티에 대한 오르내림을 계속하던 twenty one pilots는 그들의 마지막 앨범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Trench> 이후 지적받던 창의성의 부족과 개별 장르에 대한 이해도는 그들의 고점이 띄던 원형으로 복각되었고 이제 하나의 비행을 끝마친 이들은 새로운 항로를 설정하고자 한다.

TRACKS

1. Overcompensate / 2. Next Semester / 3. Backslide / 4. Midwest Indigo / 5. Routines In The Night / 6. Vignette / 7. The Craving (Jenna's version) / 8. Lavish / 9. Navigating / 10. Snap Back / 11. Oldies Station / 12. At The Risk Of Feeling Dumb / 13. Paladin Strait

by Editor BlackMatter



Por cesárea



TRACKS

- 01. Últimamente
- 02. La novia de mi amigo
- 03. Cirugía**
- 04. Mi peor enemigo
- 05. (Mentiras Piadosas)
- 06. La carie
- 07. Buenos tiempos**
- 08. Muñecas
- 09. (Irreversible)
- 10. Coyote
- 11. Reiki y yoga
- 12. Ciudad de la Paz

2024.04.26



아티스트들은 때때로 자신의 비극적인 경험을 음악으로 승화시킨다. 동료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에서 비롯된 혼란을 담아낸 *Injury Reserve*의 <By the Time I Get to Phoenix>, 명예와 부를 모두 얻은 뒤 겪게 된 불안과 두려움을 담은 Saba의 <Few Good Things>, 청소년 시절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던 도시에서의 삶을 고백한 Kendrick Lamar의 <good kid, m.A.A.d city> 등. 아티스트들은 다양한 작품에서 솔직한 가사와 신비로운 분위기의 프로덕션을 내세워 자신의 처절한 심경과 상황을 꾸밈없이 투영해 내곤 한다.

아르헨티나 힙합씬의 떠오르는 신예 딜롬(Dillom)의 2번째 정규 앨범 <Por cesárea> 또한 이러한 작품이다. "제왕절개"라는 의미를 가지는 앨범의 제목이 암시하기라도 하듯, 딜롬은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비롯된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산모의 복부를 절개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이, 자신이 경험했던 지금까지의 수난들을 극복하려 하는 것이다. 딜롬은 약 3년 전에 발매된 첫 정규 앨범 <Post Mortem>에서 이미 한차례 복잡하게 얹힌 정신세계를 표출해낸 바 있다. 유년 시절, 사랑, 가족, 여성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죽음 이후"에 대한 고찰을 담아낸 작품이다. 그러나 <Por cesárea>는 그 깊이부터가 완전히 다른 작품이다. 본작은 딜롬의 인생을 집약해놓은 하나의 전기와도 같다.

<Por cesárea>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마약 중독자였던 어머니의 자살 시도를 다룬 "Últimamente", 내면의 악마를 따르기로 결정하며 자신의 선택에서 오는 쾌락을 노래한 "La carie"와 "Buenos tiempos", 한 여성에 대한 집착이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담은 "Muñecas".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은 마지막 트랙 "Ciudad de la Paz"에서 평온함과 치유의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귀결된다. 딜롬은 자신의 이야기를 매우 불쾌하게 풀어나가지만 35분 내내 어두운 이야기만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내었다.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하면서도 이를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결부하는 능력은 놀랍기 그지없다. 단순 자신의 고통만을 토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매개체로 하여 청자들에게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한편 딜롬의 이야기가 이토록 진정성 있게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에는 프로덕션이 분명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앨범의 분위기에 걸맞게 굉장히 음산하고 고어한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앨범이 진행되는 동안 일관된 톤을 유지하여 앨범의 서사를 매끄럽게 이끌어나감과 동시에 더욱 강렬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분명 딜롬의 이 무거운 이야기는 신비로운 맛으로 한껏 점철된 프로덕션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생동감 있게 다가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Por cesárea>는 한 신예에게 있어서 안정적이다 못해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소포모어 앨범이다. 앞서 언급한 스토리텔링, 어두움과 동시에 황홀함을 머금은 프로덕션은 이미 확실히 어느 경지에 오른 듯 보인다.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역동성 있게 구현해 내는 능력 역시 놀라울 만큼 탁월하다. 그러나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 바로 래핑이다. 음반에서 유일하게 다채롭지 못한 래핑이 발목을 잡는다. 분명 어느 정도 힘을 실었으나, 막상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다. 이러한 감상은 단순 언어적 장벽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점들을 제쳐두고 보아도 확실히 스토리텔링에 비해 아쉬운 랩 퍼포먼스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들만 개선해나간다면, 다음 앨범부턴 믿고 듣는 아티스트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딜롬이 내디딜 다음 발걸음에 모두 주목하라.

Fearless Movement

TRACKS

01. Lesanu
02. Asha the First (feat. Thundercat, Taj Austin & Raj Austin)
03. Computer Love (feat. Patrice Quinn, DJ Battlecat & Brandon Coleman)
04. The Visionary (feat. Terrace Martin)
05. Get Lit
06. Dream State
07. Together
08. The Garden Path
09. Road to Self (KO)
10. Interstellar Peace (The Last Stance)
11. Lines in the Sand
12. Prologue

2024.05.03

카마시 워싱턴(Kamasi Washington)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물씬 풍기는 인물이다. 말 그대로 '도사'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비주얼과 더불어, 놀라우리만큼 황홀한 그의 색소폰 연주 등으로 소위 '신성불가침 영역'에 도달한 지 오래다. 또한 그의 음악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무언가가 존재한다. 2007년의 <The Proclamation>부터 2018년의 <Heaven and Hell>까지, 카마시 워싱턴은 파괴적이고 아름다운 재즈 사운드로 그만의 거대한 낙원을 구축해 내곤 하였다. 그리고 6년 만의 따끈따끈한 신작 <Fearless Movement>는 전작에서는 쉽사리 찾아볼 수 없던 고전적인 멋을 내세워, 희망으로 가득 찬 추상적인 복합 세계를 표현해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피처링진들의 보컬/랩 퍼포먼스에 있다. 카마시 워싱턴의 최고작이라고 불리던 <The Epic>은 3시간이라는 방대한(혹은 엄청난) 러닝 타임을 자랑함에도 보컬 퍼포먼스가 등장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었는데, <Fearless Movement>는 다행히도 대부분의 트랙에서 피처링진들이 빛나는 활약을 해주고 있다. "Asha The First"가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데, 소울을 가득 머금은 Thundercat의 보컬은 곡 특유의 끈적한 분위기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두 Austin 형제(Taj Austin, Ras Austin)의 재치 넘치는 티키타카 래핑에선 Kendrick Lamar의 앨범 <To Pimp A Butterfly>의 향취가 풍길 정도로 훌륭하다. "Get Lit" 또한 비슷한 분위기를 뿐내는 트랙이다. 피펑크의 개척자 George Clinton의 'Lit'— 즉 엄청난 멋을 뽐내는 코러스는 앨범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아주 생기 넘치는 순간이며, D Smoke의 래핑 또한 완급조절을 훌륭히 해내며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뱅어 트랙이 완성되게 되었다.

그 다음엔 "Computer Lov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트랙의 평키한 분위기가 아닌, 서정적이고 구슬픈 사운드 위주로 되어있는 트랙이다. 위에 얹힌 R&B의 대가 Patrice Quinn의 보컬 퍼포먼스가 앨범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이다. 크게 특별한 부분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가창이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녀의 목소리로부터 논리와 인식의 영역을 초월한 장대한 울림이 남는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발전해버린 현대 사회에서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가삿말과 더불어 완벽한 하모니를 탄생시켜내는 전자 음악을 결합한 재즈 인스트루멘탈은 너무나도 치열하다. 트랙을 대표하기라도 하듯, 순수 빛어낸 이 현대적으로 아름다운 사운드는 지금껏 어떤 재즈 앨범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다. 참으로 놀랍다. "Together" 또한 동일한 색채를 머금고 있으나, 분명 BJ the Chicago Kid의 보컬은 매우 빼어나지만 역시나 "Computer Love"의 아성을 넘기란 매우 어려웠다.

반면 보컬 피처링진이 존재하지 않는, 오직 인스트루멘탈로만 이루어진 트랙들은 대부분이 경쾌한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3년 최고의 변신을 보인 André 3000이 참여한 "Dream State"는 대자연을 한껏 머금은 희망찬 색소폰 연주가 눈에 띄며, "The Garden Path"의 화려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재즈 사운드 또한 매우 훌륭하다. "Road to Self: KO"는 13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만큼 엄청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빛나는 순간들이 존재하였고—"Lines in the Sand"는 성스러움과 동시에 화려함을 뽐내는 아주 빼어난 트랙이다. "Interstella Peace (The Last Stance)"는 다른 트랙들과는 달리 웅장함을 가득 뽐어내는데, 5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몰입감이 앨범 내에서 가장 강하다. 트랙의 제목과도 같이 방대한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곡의 후반부는 강렬한 재즈 사운드를 통해 카마시 워싱턴 자신의 심오하고 깊은 예술 세계를 압축해 표현해낸 것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앨범은 마지막 트랙에 다다르고야 만다. "Prologue". 카마시 워싱턴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트랙은 지금껏 그가 보여주었던 예술성의 경지에 도달한 작품이다.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강렬한 사운드 설계는 앨범의 어떤 트랙과 비교해도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굉장히 위태롭지만 동시에 매우 상쾌하고 아름다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들게 만든다. 마치 20년에 다다르는 그의 여정을 상징하고 있다는 감상을 들게 할 정도로 말이다. 그 어떤 가삿말이 없이도, 이렇게 명확하게 메시지와 감정이 전달된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발매 후 고작 1달 정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분명 확신한다. 본작은 후대에 길이 남을 클래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이다. 전자 음악을 결합한 그의 새로운 시도는 더욱 아름답고 황홀한 작품을 탄생시켜내었고, 본작은 그의 어떤 작품들보다도 청자의 감정을 크게 자극하는 앨범이다. 대자연과 가상 세계, 사랑과 희망, 불안과 절망을 한데 담아낸 <Fearless Movement>는 카마시 워싱턴의 지극한 예술 세상을 모두 투영해낸 작품이며, 현대 재즈의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 되었다.

Almighty S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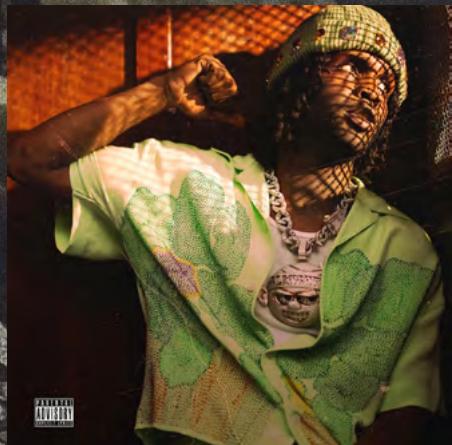
TRACKS

01. Almighty (Intro)
02. Neph Nem (feat. Ballout & G Herbo)
03. Treat Myself
04. Jesus Skit
05. Jesus (feat. Lil Gnar)
06. Too Trim
07. Runner
08. Banded Up (feat. Tierra Whack)
09. Grape Trees (feat. Sexyy Red)
10. 1,2,3
11. Drifting Away
12. Never Fly Here (feat. Quavo)
13. Prince Charming
14. Believe
15. Tony Montana Flow
16. I'm Tryna Sleep

2024.05.10

Almighty So 2

Chief Keef



속칭 '짚신벌레'라는 오명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치프 키프(Chief Keef)는 드릴의 탄생, 현시대 트랩 래퍼들에 대한 지대한 영향 등 많은 보물들을 힙합 씬에 남기며 '짚신'으로 재평가되었다. 치프 키프는 자신의 재평가를 가능케 해준 작업물을 만들며 가지고 있는 감성, 컨셉, 사운드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을 붙이며 이들을 브랜드화시켰다. 시카고 드릴을 상징하는 작품이 된 <Finally Rich>, 그 이름처럼 뱅어로 가득 채워낸 <Bang> 시리즈, 시카고를 벗어난 지역의 트랩 장르에 대한 탐구는 <4NEM>에서 선보인바 있다. 하지만 치프 키프의 디스코그래피 중 가장 궁극적인 비기는 역시나 여러 시리즈들의 장점을 섞어 탄생한 믹스테이프 <Almighty So>에 있다. 치프 키프의 '궁극기'가 제작 중임을 밝힌 지 약 6년, 발매를 예고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클타임이 완충되었다.

전체적인 구성은 과거의 작품들을 연상케 하는 동시에 한 단계 진화한 '치프 키프 올스타' 앨범에 가깝다. 치프 키프는 "4NEM RADIO"라는 새 사운드 태그를 통해 DJ Trap-A-Holics를 다시금 데려오며 청자들로 하여금 <DIRTY NACHOS>와 <4NEM>을 연상케 만든다. 또한, <Bang 2> 이후로 오랜만에 Michael Blackson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다. 초반부터 목에 핏대를 세우며 달려 나가는 본작의 하이라이트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 동명의 인터루드 뒤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Jesus'는 치프 키프의 오랜 파트너 G Herbo와의 좋은 합과 매우 격앙된 치프 키프의 퍼포먼스가 돋보여 가장 과격한 뱅어로 기억에 남는다.

시카고, 멤피스, 애틀랜타로 대표되는 트랩의 주요지역에서 온 사운드를 능수능란하게 다룬던 치프 키프는 계속해서 뱅어를 쌓아나갔다. 비슷한 톤을 가진 두 여성 래퍼, Tierra Whack과 Sexyy Red의 피쳐링이 지나가고 치프 키프는 또 다른 시카고 씬의 상징, 침명크 소울을 완급조절을 위한 장치로 등장시킨다. 천하의 치프 키프가 계속 달려나가는 것이 아닌, 한번 쉬어갈 줄도 안다는 대목은 의외이기보다도 그의 성숙에 대한 방증으로 다가온다. 비슷한 무드를 가진 하드코어 트랩 사운드로 월 새 없이 달려나가는 초반부와, 느슨하면서도 다양한 프로덕션으로 이어가는 후반부의 대비 또한 단일작으로서 흥미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4NEM RADIO"라는 새로운 기믹으로 커리어의 변환점을 맞은 치프 키프의 결과물은 과거의 영광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새로운 사운드와 새로운 톤 등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나아가 기존에 보인, '빠꾸없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사고뭉치의 모습보다는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갱스터의 면모가 더 돋보이기도 한다.

14세에 첫 믹스테이프를 냈던 소년은 많은 일을 겪고 어느새 30세를 앞둔 베테랑 래퍼이자 장르의 선구자가 되었다. 많은 래퍼들이 본인을 따라하는 것에 질려 은퇴를 선언했던 철부지도 이제는 자신의 업적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과시한다. '철들면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논제는 적어도 치프 키프에겐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 숙성된 거친 향의 시가를 연상케 한다. 이 배경에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짚신'이라는 것이다.

#RICHAXXHAITIAN

TRACKS

- 01. (...)
- 02. ANTONOMASIA (feat. Roc Marciano, The Calico Wall)
- 03. POLITICKLE (feat. Drea D'nur)
- 04. SONJE (feat. HEPHZIBAH)
- 05. PADON (feat. Tha God Fahim)
- 06. EMPTY SPACES
- 07. SUR LE PONT d'AVIGNON (Reparation #1) [feat. Sam Gendel (e-sax)]
- 08. XEROX CLAT (feat. Conductor Williams)
- 09. GORGON ZOE LAN
- 10. THE SERPENT AND THE RAINBOW
- 11. COPY COLD (feat. Quelle Chris)
- 12. #RICHAXXHAITIAN
- 13. LON LON (feat. Archie Whitewater)
- 14. AUX BON PARFUMS
- 15. SAME 24 (feat. Big Cheeko, Norman Connors)
- 16. GUGGENHEIM JEUNE
- 17. HOLY ____

2024.05.17

by Editor 예리



Full Length Album Review

#RICHAXXHAITIAN

Mach-Hommy

고대 아케메네스 제국과 로마의 지배. 강대국들의 실리에 휘둘리며 허비한 중세의 역사. 오늘날에 이르면 구 소련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토 분쟁에 놓인 맹지 와도 같은 곳. 이는 역사가 낳은 불모지, 크림 반도의 일대기다. 과거 제국주의의 빛과 어둠이 드리운 세계의 궤적 위에서 회색빛을 띠는 분자의 국가가 존재할까 싶지만, 인간 사회의 매커니즘은 70년대의 누그러진 데탕트 이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궤를 같이한다. 쓰레기장에서 피어난 장미와 같은 자연경관마저도 크루즈사의 사유지가 되며 상처들의 아래 교과서에 박제된 이야기로 남는다. 'Cash Rules Everything Around Me'. 크림 반도는 비록 Wu-Tang Clan의 곡과 다른 철 자를 가질지언정 역사의 잔재로서 함께 발음을 공유하며 씁쓸한 메시지를 공유한다. 이는 비단 크림 반도만의 고통이 아닌, 멀리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아이티의 뜻이기도 하다.

해방으로 설립되어 압제로 몰락해가는 국가. Régine Chassagne (Arcade Fire), Maxwell, Dominic Fike, BNYX, 그리고 대표 인물로 꼽히는 Jean-Michel Basquiat와 Wyclef Jean의 영혼에 깃들어있는 국가 아이티. 피지배의 자생을 외치며 노예제도의 폐지를 발발시킨 혁명의 국가라는 딱지를 뒤로 한 채, 오늘날의 아이티는 국가 부채에서 발발한 경제적 몰락과 치안의 붕괴로 지구 온난화 속 투발루보다 빠른 속도로 침몰하고 있다.

그런 아이티의 디아스포라 출신 래퍼 Mach-Hommy는 아이티라는 국가의 특성을 곧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다. Mach의 2021년 발매작 <Pray For Haiti>는 그가 아이티의 평안과 존속을 외치는 대표적인 증거물이다. 하지만 그런 Mach을 비웃는 듯, <Pray For Haiti>의 발매 후 고작 2개월 남짓한 시간 뒤 아이티 대통령의 피살 사건이 벌어졌다. Mach은 인터뷰에서 영원한 사슬고리를 언급함과 함께 생존자의 죄책감(Survivor's Guilt)을 강조한다. 세계가 프랑스에게 그러했듯 (Westside Gunn - <Pray For Paris>) 아이티를 위한 기도에도 동참하기를 요청하며, 자신이 아이티를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과거 Nipsey Hussle이 그랬듯이, Mach은 신념을 내건 추진력을 제시하며 황무지에 가까운 아이티로부터 역사의 영광과 국가 위상의 회복을 고취한다.

Jounen Drapo Ayisyen. 어김없이 아이티 국가의 날을 하루 앞두고 Mach은 오랜 기다림 끝에 속칭 '아이티 4부작'의 마무리라 불리우는 <#Richaxxhaitian>을 발표했다. 47분의 길이에 달하는 본작은 아이티를 향한 이야기의 포문을 연 <HBO (Haitian Body Odor)> 이후로 가장 긴 러닝 타임의 앨범이다. 지난 8년간 Mach이 30분 내외의 길이로 유려한 지휘 능력의 전개를 선보였던 것에 반해, 그는 아이티 4부작의 발발로 다시 회귀했다. 비교하자면 그의 태도는 좀 더 공격적으로 보인다. 모호한 코러스로 영문과 아이티 크레올어의 경계를 오가는 인트로 트랙 "(...)"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앨범을 견인하는 최고의 매력은, 기묘하고도 때로는 섬뜩한 곡조들을 흘어놓으며 밀도 높게 점철한 가사와 랩 스킬의 배치다. 이교도의 주문을 외우는 "EMPTY SPACES", 어느 노장의 전통 관악기 연주로 이끄는 듯한 "THE SERPENT AND THE RAINBOW" 등에서 두드러진다. Mach-sthetic의 전체적인 틀을 유지한 "COPY COLD"와 "SAME 24"에서는 과거 "1080p"과 "Bey Six" 등에서 느낀 재즈 랩 특유의 피아노를 기반으로 한 기질의 향미가 돋보이고, KAYTRANADA 와 03 Greedo와의 협업으로 완성한 "#RICHAXXHAITIAN"은 그간 Mach에게서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방향성의 힌트가 되어준다.

결과적으로 <#Richaxxhaitian>은 참으로 오묘하다. <Balens Cho (Hot Candles)>의 다음 순번을 장식해줄 작품이 3년의 기다림 뒤에 탄생했기 때문일까. 혹은 <HBO (Haitian Body Odor)>와 <Pray For Haiti>의 완성도를 바로 어제 발매된 작품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직 그의 작품들이 전혀 낡지 않았기 때문일까. Griselda의 일원들보다도 Roc Marciano에 가까울만큼 섬세한 프로덕션 텍스처라이징에 몰두하던 그의 성향으로 미루어볼 때, Mach은 커다란 이탈 없이 손가락을 뺏어 가리킬 수 있을 만큼의 변화만으로 기시감을 덜어내어 이전의 세 작품들과는 다른 향취로 대장정을 마무리해냈다.

그의 장기인 고급 승용차와 같은 날렵하고 매끈한 움직임에 일부 의도적인 노이즈를 끼얹고, 동시에 약간의 뒤틀림을 군데군데 삽입하며 Mach의 매력으로 흡수시킨다. 마치 <IIIadelph Halflife> 이후 재즈 힙합의 카테고리를 일부 선회한 <Things Fall Apart>를 발매한 Roots를 연상케 한다. 티끌이 씹히는 후추처럼 오묘한 파편들은 자극의 조절로 등락을 완성시킨다.

본작도 일부 트랙들을 통해 변칙적인 전위성을 포함하지만, 주된 청취 요소들은 견고한 내실을 기반으로 풍부히 전개하는 양상이다. 그의 랩을 주류로 이끌어낸 여유로운 툰과 세련된 부드러움은 단단히 잡으며, 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완급 조절에 개입하며 Mach의 랩 실력에 느끼던 갈증을 말끔히 해소시킨다. 결국 <#Richaxxhaitian>의 완성은 지극히 Mach-Hommy스러운, 보석을 세공하는 장인의 철칙처럼 미세한 각도의 차이로 완성된다.

8년이 지난 현재 Mach은 익히 알려진 모습 그대로다. 몇백 달러의 값에 달하는 바이닐을 판매하고, 얼굴와 이름을 비롯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극히 꺼리며, 리스너들 다수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가사에 섞으며, 그마저도 활자 시청의 제한으로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그가 얼굴을 드러내는 대신 아이티 국기를 감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여타모로 Mach은 예나 지금이나 참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하지만 곡해된 적 없는 아집은 곧 신념이 되듯, 그가 아이티를 내걸고 걷는 길 위에 그 만큼 당당히 걸음을 내딛 수 있는 이가 있을까.

liberté ou la mort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isolation

TRACKS

01. Body Language (Intro)
 02. Miami (feat. BIA)
 03. Just A Stranger (feat. Steve Lacy)
 04. Flight 22
 05. Your Teeth In My Neck
 06. Tyrant (feat. Jorja Smith)
 07. Dead To Me
 08. Nuestro Planeta (feat. Reykon)
 09. In My Dreams
 10. Gotta Get Up (Interlude)
 11. Tomorrow
 12. Coming Home (Interlude)
 13. After The Storm (feat. Bootsy Collins, Tyler, The Creator)
 14. Feel Like A Fool
 15. Killer
- 2018.04.06



"나는 고전적인 트레이닝이나 특정 유형의 음악적 기준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와 비슷한 예술가들에게 유독 끌린다." 칼리 우치스(Kali Uchis)가 <Just A Stranger>의 작업을 Steve Lacy와 함께 한 이유에 대해 남긴 코멘트이다. 하물며 피처링을 포함하여 자신과의 협업을 요청/수락한 대부분의 뮤지션들, 이를테면 Tyler, The Creator나 Kevin Parker, Damon Albarn 등의 스타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였다. 즉, 스타일 및 이미지의 고착화를 지양하는 것이다. 그녀의 강점 중 가장 익히 알려진 '장르적 스펙트럼'은 그러므로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며, 이는 나아가 곧 얼터너티브 알앤비의 기본 원리이자 방향이기도 하다. 여기서 부득이하게 구체적인 장르적 논의에 분량을 할애하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접근법으로서의 얼터너티브는 금방 서술한 특성 덕분에 앤티-, 포스트-, 익스페리멘탈- 등의 접두어가 붙는 타 장르들이나 심지어 '네오 소울'보다도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탈장르가 아닌 범장르적 시도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탈피/혁신이 아닌 교집/절충이란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장르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이미 정형돼있는 각각의 방식을 따르며, 고전적인 사운드에 대한 강박적인 거부가 없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적절히 배합하여 본인의 개성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그만이다.

칼리는 이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영리하게 이용할 줄 알기에 업계의 모범 사례로 남았다. 그녀는 답습이란 함정을 가뿐하게 피하면서도 자신의 음악적 영감, 혹은 정체성과도 가닿는 선배들의, 혹은 지역 및 민족 전통의 멋을 유연하게 끌어들인다. 그렇게 여리고 유연한 스타일과 감성을 조합한 뒤 자신의 싱어송라이팅으로 하여금 컨템포러리 알앤비와 메인스트림 팝의 얼개로 한 데 묶어낸다. 덕분에 그녀는 이중언어 앨범에서 자신의 강점이 더욱 잘 드러난다. 영어가 쓰인 노래는 라틴 뮤지카(musica)처럼 들리고, 스페인어로 쓰인 노래는 빌보드에 최적화된 서구권 팝처럼 들리는 신묘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따금씩 현실에서 경험해 본 적조차 없는 세계에 데려가 주는 것도 물론이다.

자, 여기까지가 뮤지션의 고유한 매력과 더불어 앨범 *<Isolation>*에 관한 서론이었다. 즉 그녀의 진면목이 '데뷔 LP'라고 하는 한 상의 디너 코스에 고스란히 차려 있다. 다채로움과 풍성함으로 일단 귀가 즐거운 각각의 이벤트에는 콜롬비아계 민족에 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의 긍지는 비슷하게 자신이 나고 자란 문화에 대한 열렬한 애정에 전념하는 Rosalía, Bad Bunny, rauw Alejandro, J Balvin 등의 스타들과 궤가 일맥상통하다. 그들의 혼신으로 말미암아 음악의 주된 소스로 사용되는 장르들은 대개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부흥을 일궈내려는 정신을 심지로 삼는다.

본작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이를 애피타이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까다로운 북미권 미식가들의 입맛을 강렬하게 사로잡는 데 주안점을 둔 인트로 'Body Language'를 보자. 곡에 쓰인 보사노바 사운드는 보통 특유의 리듬을 통해서만 어필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정확히는 브라질의 삼바에 미국의 재즈를 섞은 것이 기원이자 특색이다. 여기에는 크로스오버를 통해 자국의 전통 예술을 대중음악의 문법으로 번역해 세계화를 이루려는 문화운동, 트로피칼리아(*Tropicália*)로서의 목적성이 짙게 깔려있다. 칼리는 이를 짚고 넘어가려는 듯 재지한 선율과 악기 사용을 강조한다.

인트로를 포함해 칼리는 15곡에 걸쳐 얼트-알앤비의 교집적인 방식을 다방면으로 유감없이 활용하며 시간성마저도 능숙하게 다룬다. 본작에는 2010년대부터 가장 뜨겁게 유행 중인 레게톤('Nuestro Planeta'), 90년대의 네오 소울('Gotta Get Up', 'Coming Home'의 후반부)이나 힙합('Miami')은 물론이오, 80년대의 신스팝('Deat To Me', 'Tomorrow'), 70년대의 흥크('Just A Stranger', 'Tyrant')와 트위팝('In My Dreams'), 60년대의 (*Veloso-esque*를 곁들인) 사이키델리아('After the Storm') 등의 요소를 모두 가져왔다. 본고장과 외래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연대별로 산업을 지배해 온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매듭짓는 그녀의 솜씨는 말 그대로 팝 뮤직의 광대한 시대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다.

본작의 다채로운 재미는 일련의 내러티브 곳곳에 발견되는 작가 본인의 캐릭터성(혹은 에고)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기도 하다. 앨범 아트워크 속 배경과 의상으로부터 오버랩되는 그녀의 외연을 먼저 보자. 강렬한 원색들에 의한 시각적 자극으로 말미암아 관능, 퇴폐, 고혹, 도발 등의 인상이 떠오른다. 이 순간만큼은 마치 플라멩코의 여신이 에스파냐가 아닌 콜롬비아의 그녀라고 감히 믿고풀 만큼 고고한 팜므파탈의 모습에 헤어 나오기 힘들다. 이렇듯 도발적인 풍채에 걸맞게 스토리텔링으로 하여금 묘사되는 그녀의 내적인 모습 역시 강인함이 돋보인다. Pitchfork에서 이를 두고 High-Femme Fantasy라고 칭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그 강인함이란 주체적인 여성상과도 밀접하다.

이러한 여성상은 매우 다각적인 형상으로 밀도 높게 묘사된다. 그녀의 팔색조 같은 매력이 더욱 아름답게 발현되는 지점이다. 앞서 언급한 팜므파탈부터, 신비와 지혜를 모두 갖춘 몽상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이성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연인, 아메리카의 사회적 부조리에 통달해 있는 신랄한 언변가, 자신의 사유와 감정을 거리낌 없이 표출할 수 있는 수필가까지 세밀하게 조명한다. 각 곡마다의 컨셉에 맞춰 하나씩 캐릭터를 배치한 것이 아니라, 한 곡 안에서도 각각의 모습들이 직관적이고도 교묘하게 얹히고설켜있다.

아메리칸드림을 실천하려 고향을 떠나 마이애미로 향한 그녀가 여러 환경을 맞닥뜨리며,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자의식을 만들었는지를 회고하는 'Miami'가 이 부분에서 대표적이다. 곡의 가사와 보컬 퍼포먼스를 아울러 상기한 면모들이 놀라울 정도로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대부분 담겨있다.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적인 권력을 가진 주인공이 될 수 있음'과 '기회의 땅에서 비로소 뜻뜻하게 성공을 거둘 수 있음', '세계 최고의 예술적 거장으로 우뚝 설 수 있음' 등을 간결하고도 명쾌하게 표현한 "But why would I be Kim? I could be Kanye in the land of opportunity and palm trees."이란 구절은 그야말로 압권이라 할 만한 편치라인이다.

트로피칼리아와 페미니즘, 팔색조로서의 매력과 그것의 코어로 작용하는 확고한 아이덴티티. *<Isolation>*에서부터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보여줬다고 여길 만큼 풍성하고도 뚜렷한 미학과 컨텐츠는 작년의 *<Red Moon in Venus>*부터 올해 *<Orquídeas>*에 걸쳐 현재까지도 한계를 모르고 확장하고 있다. 그녀의 비주얼은 주홍에서 선홍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색채이되, 변치 않고 화려하고도 신비롭다. 몇 번을 보더라도 강한 자극과 이끌림을 동시에 팬들의 뇌리에 깊게 심어 넣는다. 여전히 첫 작품의 아트워크처럼 푸른 대양을 가로지르며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 대륙에 걸쳐 자신의 자태를 다이내믹하게 뿐내고 있다.

black moon



TRACKS

- 01. Powaful Impak!
- 02. Niguz Talk Shit
- 03. Who Got Da Props
- 04. Ack Like U Want It
- 05. Buck Em Down
- 06. Black Smif-n-Wessun
- 07. Son Get Wrec
- 08. Make Munne
- 09. Slave
- 10. I Got Cha Opin
- 11. Enta Da Stage
- 12. How Many MC's...
- 13. U Da Man

1993.10.19

by Editor ryuzimoto

entada
stage

PARENTAL
ADVISORY
EXPLICIT LYRICS

black moon
anta da stage



PP-VINE



작년, 즉 23년을 기점으로 어느덧 힙합은 50주년을 맞이했다. 타 장르와 비교하면 그리 길지 않은 역사지만, 이 50년 동안 힙합은 단 한 번도 해제모니를 놓친 적이 없었다. 그만큼 수많은 앨범들이 뜨고 쪼이며, 그중에서도 흔히 '클래식'이라 평가받는 몇몇 작품들은 이 씬을 공고히 다져나가는 데 일조했다. 그럼 과연 클래식이라 일컬어지는 데는 어떠한 요소들이 가장 주요할까?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대표적으로 랩 퍼포먼스, 독보적인 사운드, 선구적인 테크닉, 서사가 담긴 리릭 등을 꼽을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모든 것이 내재돼있더라도 결국 후대에 끼치는 영향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클래식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앨범도 이보다 묵직한 영향력을 끼친 앨범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골든 에라 시절 삭막했던 동부에서는 말이다. 바로 트리오 블랙 문(Black Moon)의 데뷔 앨범 <Enta da Stage>이다.

1993년은 닉터 드레(Dr. Dre)의 <The Chronic>로 인해 지-펑크를 토대로 한 서부 힙합이 메인스트림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동부 힙합의 입김은 미미했고, 타 지역과 구분되는 그들만의 확실한 방법론도 없었다. 이렇게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블랙 문은 <Enta da Stage>를 발매했다. 물론 발매 당시 상업적으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편일 뿐이다. 이 앨범의 진정한 면모는 그렇게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달의 어두운 뒷면처럼 말이다.

거칠고 투박한 금속제 드럼, 먼지가 가득 쌓인 브라스 샘플, 건조한 베이스 루프 등.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랙 힙합의 특징이 모두 여기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사운드적 시도는 있었겠지만, 이처럼 매끄럽게 압축한 결과물은 없었다. 멤버 중 한 명인 디제이 이블(DJ Evil Dee)가 속해 있는 팀 더 비트마이너즈(Da Beatminerz)가 모든 트랙을 하나의 테마로 일관되게 프로듀싱했다. 선 발매 싱글 "Who got da props?"를 포함 부기 다운 프로덕션(Boogie Down Productions)의 "My Philosophy"을 샘플링한 "How Many Mc's...", 호른과 묵직한 베이스가 물입력을 선사하는 "I Got Cha Opin" 등에서 이들이 지향하는 비트의 테마이자 방향성인 '정제된 미니멀함'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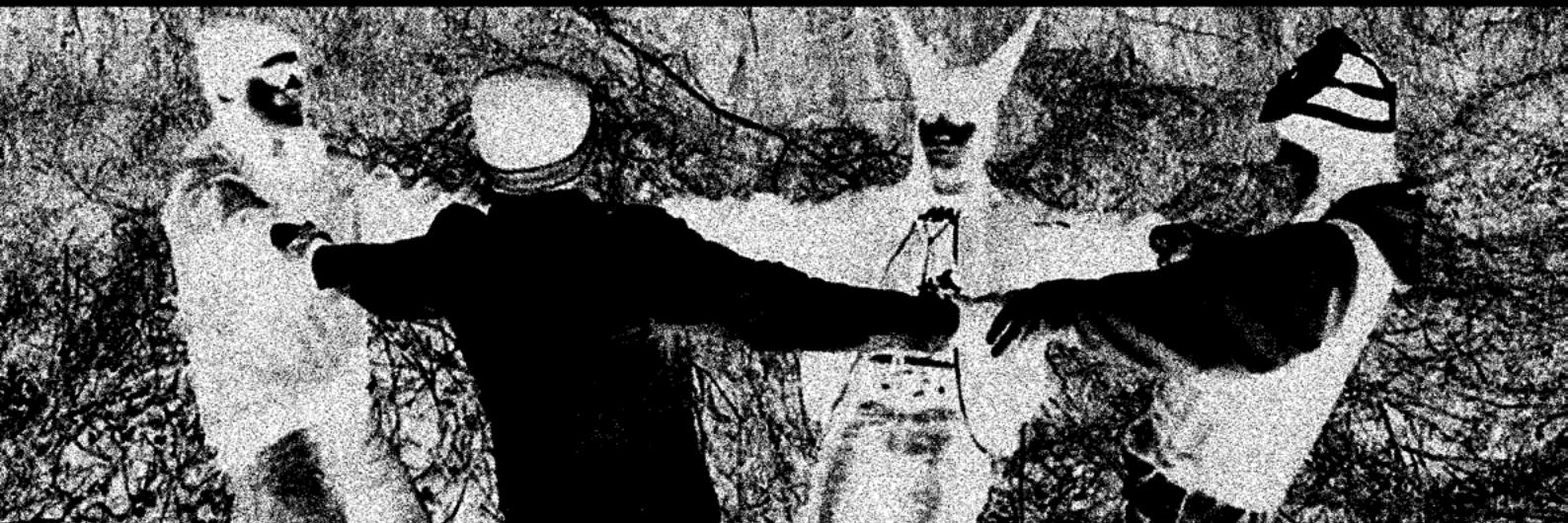
그룹의 프론트 맨인 벅샷(Buckshot)은 14개 트랙 중 10개의 트랙을 솔로로 소화하는데, 호전적인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스킬적인 측면보다는 하드코어 랩핑의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준다. 다른 멤버인 파이브에프티(5ft)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당시에는 훗을 단체로 코러스 하는 것이 특징이였다. 여기에 블랙 문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 흐름의 시작은 오닉스(Onyx)를 기점으로 하지만, 그들과 다르게 블랙 문은 수많은 동료 래퍼들을 모두 한데 모아 진행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거의 모든 트랙이 이 같은 형식을 따고 있으며, 역시 "Buck Em Down"이 가장 대표적이다. 맘 딥(Mobb Deep)의 하보크, 스미프 엔 웨선(Smif N Wessun) 등이 참여한 단체곡 "U Da Man"도 빼놓을 수 없다. 이 트랙은 훗날 슈퍼 그룹 부트 캠프 클릭(Boot Camp Clik)의 전신이 된다.

<Enta da Stage>를 필두로 이후 수많은 명반들이 뉴욕을 강타했고, 이는 자연스레 골든 에라로 이어졌다. 물론 <Enter the Wu-Tang>, <Illmatic>, <Ready To Die> 등 동시대의 타 앨범들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 점점 잊혀져갔다. 하지만 블랙 문은 앞서 언급한 앨범들보다 더 먼저 동부 힙합의 초석을 뒤아낸 데 일조했다. 그들의 상징성 있는 문법은 지-펑크와 갱스터 랩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고, 동시에 타 아티스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기도 했다. 이는 이후 백팩 랩(Backpack Rap)이라는 언더그라운드 힙합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모든 것은 <Enta da Stage>가 동부 힙합으로 입장하는 본격적인 첫 출발점이자 근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이리라.

Featured

GTBSG'11

BLADEE ECCO2K THAI BOY DIGITAL WHITE ARMOR



GETTING DRAINED | DRAINING | KEEP DRAINING



BY EDITOR BLACKMATTER

GETTING DRAINED

Gravity Boys, Shield Gang, Drain Gang, DG, D-9. 지난 10년간 이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그들의 방대한 음악적 스펙트럼만큼이나 다양했고 꾸준히 변화해왔다. 자신들의 내면과 고통을 노래하며 독보적이면서도 독특한 음악 선보이는 이들이 이룩해낸 음악적 성과와 컬트적인 팬덤은 지난 11년간의 여정이 남긴 기다란 발자취를 실감하게 해준다. 2013년 8월, 12트랙 분량의 컴필레이션 <GTBSG>로 원대한 시작을 알린 이들은 지난 11년간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Getting Drained

2013년의 스톡홀름. 경찰의 이민자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스톡홀름 폭동이 발생한 격동의 시기에,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소년들이 모여 스웨덴의 젊은 세대의 정서를 음악으로 표현해 내기 시작했다. 19살의 Benjamin Thage Dag Reichwald와 10살 때부터 친구였던 Zak Tor Adebanwo Sten Arogunade Gaterud는 자신들의 Grindcore 밴드 Krossad를 멈추고 새로운 컬렉티브를 모으기 시작했다.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그룹의 컨셉에 걸맞게 명확한 과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스웨덴에 거주하던 Khazitin G. Bonleunge와 Ludwig Tomas Walther Rosenberg, Axel Tufvesson을 만나게 된 베냐민과 자크는 마침내 Gravity Boys를 완성시켰다.

음악적 페르소나를 위해 Bladee라는 이름을 택한 베냐민, Ecco2k를 택한 자크, Thaiboy Digital을 택한 캐시팅과 Whitearmor을 택한 루드비그, Yung sherman을 택한 악셀은 2013년 첫 컴필레이션을 발매했다. 초반기 Drain Gang을 대표하는 몽환적이고 공간감 있는 Trap 사운드에 얹힌 멤버들의 힘없는 래핑은 마치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drained) 듯한 착각을 자아내며 그룹의 색을 확립시킴과 동시에 깊고 매니악한 팬층의 시작을 알렸다.



Draining

첫 컴필레이션 이후 드레인 갱은 각자의 분야에서 솔로 활동을 이어나갔다. 블레이드는 <Eversince>라는 성공적인 데뷔 앨범으로 포문을 열어 약 12개의 정규 앨범과 3개의 믹스테이프를 발매했고, 타이보이 디지털 또한 Cloud Rap이라는 같은 노선의 앨범들을 여러 장 발매했다. 이처럼 허슬을 통해 순항을 이어오던 드레인 갱은 에코투케이의 정규 1집 <E>와 블레이드의 <333>으로 스타일의 변화를 꾀했다. 트랩에 기반한 기존 클라우드 랩 스타일에서 Electronic 장르의 색을 가미하며 싱잉 랩의 비중을 높이기 시작한 본작 이후, 드레인 갱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급격히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전작들에서도 돋보였던 몽환적인 공간감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고 실험성은 더욱 강해졌으며 클라우드 랩에서 벗어난 장르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블레이드, 에코투케이 그리고 타이보이 디지털의 합작 앨범 <Trash Island>와 에코투케이의 <PXE>, 화이트아머의 <In the Abyss: Music for Weddings>에서 정점을 보였다. 각각 Glitch Pop과 Post Industrial, Ambient와 New Age라는 과거 드레인 갱의 노선에서 완전히 키를 돌린 사운드를 선보인 두 앨범은 뉴 드레인 갱의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작으로 자리 잡으며 다양성을 강조시켰다. 특히 에코투케이는 2015년 밴드캠프를 통해 발매한 EP <Crush Resist (CR_2015)>에서 선보인 Deconstructed Club과 Electro Industrial로 증명했던 일렉트로닉 장르에서의 능숙함을 뛰어나게 활용하며 비평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Keep Draining

2020년대에 들어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을 자신들만의 음악에 쏟아부은 드레인 갱은 여전히 허슬과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2024년에만 두 장의 정규 음반을 발매한 블레이드는 드레인 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Sad Boys의 Yung Lean과의 합작 <Psykos>와 <Cold Visions>를 통해 각각 다른 두 개의 장르를 선보였다. <Psykos>에서 선보인 Post-Punk와 Alternative Rock은 예상치 못한 방향성으로 청자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믹스테이프 <Working on Dying>에서 합을 맞추었던 프로듀서 컬렉티브 Working On Dying의 F1lthy의 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Rage 장르를 선보인 <Cold Visions> 또한 평단과 대중의 찬사를 받고 있다. 신비주의를 통한 이미지의 조성과 독특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변화는 영 셔먼이 탈퇴하며 4명이 된 드레인 갱의 향후 10년을 다시금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일 것이다.

KEEP DRAINING

토론토의 두 기둥, 드레이크(Drake)와 위켄드(The Weeknd). 4월 발매된 메트로 부민(Metro Boomin)과 퓨처(Future)의 합작 앨범 <WE STILL DON'T TRUST YOU>에서 위켄드가 드레이크를 향한 디스를 날리며 같은 도시 출신의 동료이자 친구로 잘 알려져 있던 둘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과연 이 둘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둘이 처음 만난 날부터 이번 디스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둘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굵직한 사건들을 요약해 모아보았다.

-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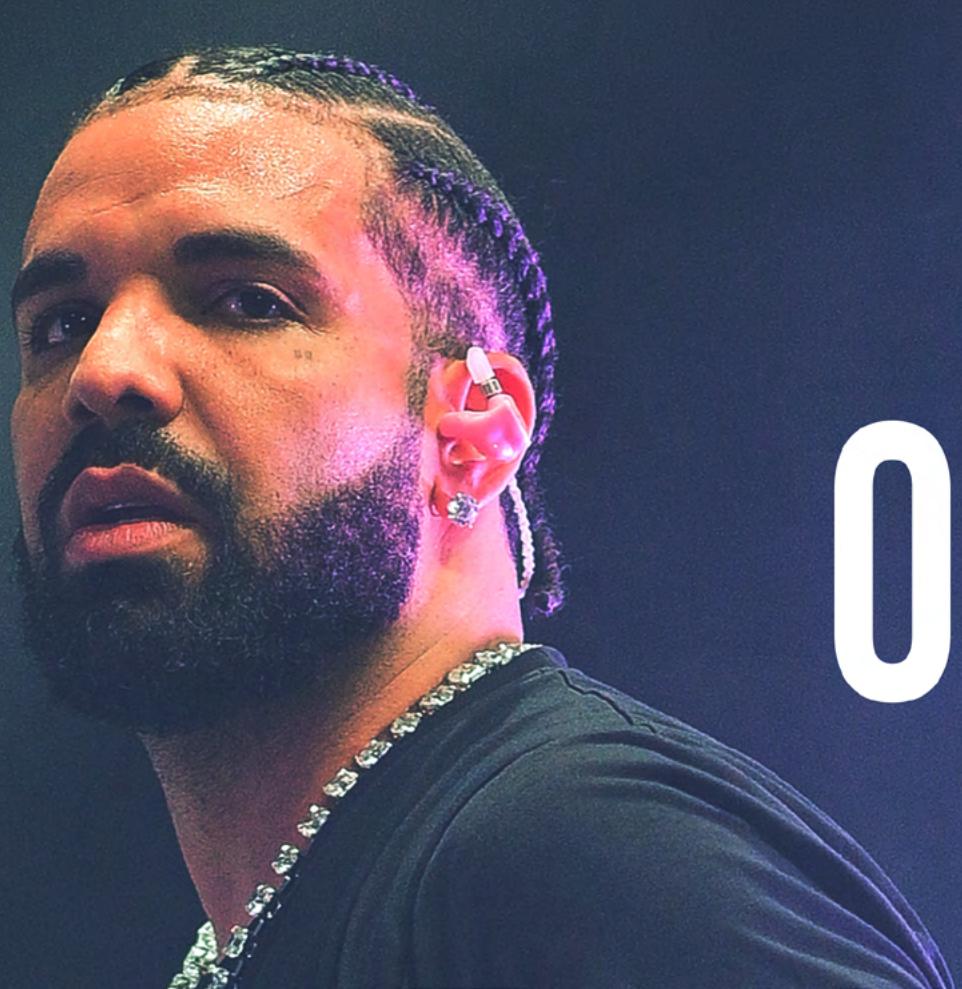
문제야, 그리고 양아치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던 토론토의 한 소년에게 드레이크의 믹스테이프 <So Far Gone>은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 소년의 이름은 Abel Tesfaye, 훗날 위켄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된다.

- 2010년 12월 12일

그 누구도 위켄드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시절, 휴斯顿에서 큰 성공을 거둔 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드레이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위켄드의 음악을 사라웃한다. 이후 2011년, 자신의 앨범 <So Far Gone>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위켄드의 믹스테이프 <House of Balloons>가 발매된 후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언급하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팬과 우상에서 동등한 관계의 동료로 발전하게 된다.

- 2011년 10월 ~ 11월

8월 발매된 위켄드의 곡 "The Zone"에 피쳐링으로 이름을 올린 드레이크는 이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새로 발매 될 앨범 <Take Care>에 대한 코멘트를 남기며 위켄드를 언급한다. "그는 제 새 앨범에 실릴 네 곡에 참여했어요. 전 그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전 주로 제가 직접 제 곡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는 저와 같은 도시 출신으로 서로 같은 감정을 느끼기에 함께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OVO

- 2012년 5월 ~ 12월

점점 미디어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위肯드. 드레이크는 그를 자신의 레이블인 OVO에 영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드레이크는 위肯드를 파티넥스트도어(PARTYNEXTDOOR)와 같은 송라이터 겸 아티스트로 영입을 하고 싶어했기에 위肯드는 결국 이 제안을 거절하고 리퍼블릭 레코즈(Republic Records)와 계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드레이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한다. “그냥 감사 인사로 통찰 생각은 하지마... 넌 내게 빛진거야.”

- 2013년 7월

드레이크가 참여한 위肯드의 새 앨범 <Kiss Land>의 수록곡 “Live For”이 공개되며 둘 사이에 불거졌던 불화설이 잠재워진다. 또한, 드레이크는 자신의 유럽 투어에 위肯드를 함께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다.

- 2013년 9월

컴플렉스(Complex)와 함께한 위肯드의 첫 인터뷰가 세상에 공개된다. “<House of Balloons>엔 사실 훨씬 더 많은 곡들이 수록되어야 했어요. 더 많은 곡들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 <Take Care>이 등장했죠. “Crew Love,” “Shot for Me,” 그리고 “The Ride”는 원래 <House of Balloons>에 실릴 곡들이었어요. 한 14곡 정도로 꾸려서 발매하고 싶었었죠. 근데 그때 드레이크가 이 곡들을 들었고 맘에 들어했어요.” “드레이크는 저 없인 그 앨범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 얘기했어요. 앨범의 크레딧을 보아도 그가 제게 고마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Practice의) 혹은 전부 저예요. 그게 제가 <Take Care>를 위해 새로 쓴 유일한 곡이기도 하죠. 나머지는 전부 <House of Balloons>을 위해 만든 곡들이었어요. 그는 제 사운드를 정말 좋아했는데, 제 사운드는 그의 사운드로부터 왔어요. 제 음악이 그리 새로운건 아니였어요. 다만 제 음악이 그의 음악에서 조금의 변화를 준 것에 불과하니 그가 공감하기 쉬웠겠죠.”



OVOXO

- 2015년 9월

드레이크에게 고스트라이터 여부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 그에게 사라웃을 보내는 위켄드의 롤링 스톤(Rolling Stone) 인터뷰가 공개된다. “전 제 앨범의 반절을 포기해야 했어요. 힘들었죠.” “전 언제나 그에게 감사할거에요. 그가 제게 빛을 비춰주지 않았다면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에요.”

- 2017년 10월 ~ 11월

드레이크가 자신의 OVO 페스티벌에 위켄드를 불러 OVO와 위켄드의 레이블 XO의 협업 프로젝트를 암시한지 불과 2달이 지난 10월, 드레이크가 위켄드의 전여친인 벨라 하디드와 교제 중이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위켄드가 드레이크의 <Take Care>의 절대적인 부분에 관여했다는 인터넷 댓글에 드레이크가 직접 답을 남기며 이를 부정한다. “그 앨범엔 총 스무 곡이 있어 (위켄드가 참여한 곡은 네 곡 뿐) ... 나 굽지마.”

- 2019년 1월

게샤펠슈타인(Gesaffelstein)과 함께한 “Lost in the Fire”이라는 곡을 통해 위켄드는 드레이크를 향한 디스를 날린다. 해당 가사는 위켄드는 푸샤티(Pusha-T)의 드레이크 디스곡 “The Story of Adidon”에서 밝혀진 드레이크의 사생활을 언급한다. “And I just want a baby with the right one' / Cause I would never be the one to hide one,” (난 그저 진정한 사랑을 만나 함께 아이를 갖고 싶을 뿐이야 / 난 절대 내 아이를 숨기지 않을거거든)



- 2019년 12월

드레이크는 자신의 곡 "War"을 통해 자신과 위켄드에 대한 오해를 품다. "And the boy that sound like he sang on 'Thriller,' / You know that's been my n**a, yeah / We just had to fix things, family, 6 tings, we can't split up,"* "그리고 그 마이
클 잭슨 같은 그 친구, 그는 언제나 내 편이었어. 우린 잠시 해결할 문제가 있었을 뿐, 우린 가족이자 같은 도시 출신, 우린 갈라설 수 없어"

- 2022년 7월

드레이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위켄드를 처음 들었던 날에 대한 스토리를 올리며 그에 대한 샤라웃을 보낸다. "오케이, 여기 봐
봐. 이 장소가 바로 내가 처음 위켄드의 음악을 들었던 곳이야. 샤라웃 투 내 브라더 올리버. 올리버가 여기서 내게 위켄드를 들려줬었지.
우린 여기에 주차를 했었고 그 날은 비가 왔었지. 이제 그는 스카이돔을 매진시키는 아티스트가 됐어. 이제 스카이돔을 매진시킨다고."

여기까지가 디스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일어난들의 이야기이다. 이후 서로의 파티에도 참석도 하며 가사에서 샤라웃을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듯 보였던 두 사람은 결국 2024년 벌어진 켄드릭 라마와 드레이크의 디스전을 통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며 토론토의 왕좌에 대한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동부 힙합이 막 골든 에라의 전성기를 활짝 열어젖히고, 서부 힙합이 지펑크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고, 중부에서는 얼굴이 벌개진 백인들이 컨트리를 흥얼대며 시가를 태우고 있을 때—남부힙합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 아직 본격적으로 Outkast가 씬에서 활개치고 다니기 전의 일이다. 남부 씬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랩스타는 스카페이스(Scarface) 뿐이었다. 휴스턴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스카페이스는 1집 <Mr. Scarface Is Back>과 2집 <The World Is Yours>를 내며 열광적인 팬층을 얻었고, 평론지의 준수한 호평을 얻어냈으며, 여유롭게 음악 활동을 할 만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The Diary>로 역사에 남을 흥행과 호평을 훤히 뒤 Outkast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아마 그 패권 교체가 끝없는 쇠퇴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때 마이애미 베이스와 더불어 남부의 자랑거리였던 스카페이스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지금은 어디서 무얼하는지조차 가물거릴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 어쨌건 앨범이야 어디선가 내고 있을 것이다.

스카페이스가 1994년에 발표한 <The Diary>에는 근원적 미스터리가 어려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이러한 그의 행보로부터 비롯된다. 그는 미국 전역에 힙합이라는 장르가 완전한 주류로 올라서기 직전, 이 앨범에 자신의 혼이 내포한 표현력을 전부 쏟아붓고는 서서히 힙합사의 표충 아래로 사라져버렸다. 자연히 그가 남기고 간 전설적 자양분을 회모하지 않을 수 없다. 스카페이스의 3번째 스튜디오 앨범 <The Diary>는 상업적인 색깔이 아주 옅지만 기록적인 흥행을 했고, 죽음에 관해 논하지만 그 가사가 사람들의 입에서 유희적으로 오르내린—아주 희한한 물건이다. 이러한 앨범의 특질은 그 현상 자체로 수수께끼 같지만, 스카페이스 본인이 쓴 의 변경으로 밀려나면서 마침내 하나의 원형적 미스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상업성에 크게 연연한 적 없던 그였으므로, 아마 다시는 수면 위로 드러난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덩그러니 놓인 <The Diary> 하나 뿐이다. 스카페이스는 어둠 속에서 저주받은 황금을 던져놓고는 사라지는 주술사처럼—살인과 고독의 제언들을 뭉쳐놓고서는 힙합사의 표충 아래로 홀연히 침전한다. 그리고 그가 침전한 자리엔 어떠한 예술적 부활이나 성공과의 해후도 없이, 늘 장대한 파고만이 남았다. 그건 아마 우리가 다소 고루하게 느낄지 몰라도 이 엄숙한 사의식의 일기를 계속 들여다볼 수 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The Diary>*의 음악은 스카페이스의 디스코그래피 중에서도 특출나게 높은 흡인력을 자랑한다. 랩 앨범의 인트로보다는 스코어의 오프닝을 연상케 하는 도입부부터, 그는 이 랩 앨범을 그저 '플로우의 전시장'만으로 취급하지 않겠노란 결단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 결과 간단한 프레이즈 하나에도 진중한 음성이 서린, 예리한 작품이 완성되었다. 둔중하고 군데군데 밀도 높으며, '상당 부분' 끊겨있는 스카페이스의 랩은 그루브를 최대한 배제한 채 어마어마한 타격감을 선사시켜내는 장치였다. 자연히 부드러운 플로우 전개를 달피한 랩 방법론과 뻣뻣한 발성이 빛어내는 *<The Diary>*만의 무게는, 앨범이 다루는 주제의 통렬함과 아포리아를 정열적으로 표구하게 된다. 사의식과 슬럼가의 삶을 다루는 앨범이 가질 수 있는 태도로써, 스카페이스가 연출한 톤앤매너와 구성이야말로 무던히도 적절한 요소였을 것이다. 통통 튀며 청자의 고막을 휘갈기는 래핑과 둔탁하게 청각을 강타하는 드럼 세트 모두가 '죽음'이란 재제에 무게감을 더하고, 날카롭게 깎인 샘플의 퀄리티가 완성도를 향해 정진한다. 그러한 요소들이 앨범이 가진 무거운 미스터리를, 둔중하게, 폭발시키듯이 힙합사 황금기의 정중앙에 떨어뜨린 게 아니었을까. .

앨범의 프로덕션은 상당부분 영화적이고, 군데군데 남부스럽다. 2010년대 전반에 걸쳐 칸예의 음악을 듣던 많은 리스너들이 이 앨범을 통해 젊은 시절의マイ크 딘(MIKE DEAN)과 재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이크 딘 이야기로 스카페이스의 무겁고 침통한 분위기를 가장 잘 연출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90년대의 저화질 영상들을 보는 듯한 포근함과 알 수 없는 음산함, 우울감이 산재된 딘의 샘플러에서는 확연한 '스카페이스적' 건조함이 베어나왔다. 청소년기에 무수한 자살시도를 했던, 스카페이스만의 고통스러운 기운과 자조적 사의식이 담긴 앨범의 프로덕션이야말로 *<The Diary>*의 존재를 귀중하게 만드는 촉매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그런 점 덕분에 *<The Diary>*의 프로덕션에 입체감이 더해진다. 직접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드나들었던 인물의 사의식 표현은, '음악'이라는 분기점에 도달해 훨씬 장엄해지고 원숙해졌으며, 능수능란해졌다. 때때로 우리가 한 차례 깊은 감정의 상실을 겪었을 때 발휘되는, 역설적 표현력의 정점과도 같은 프로덕션이 앨범이 담길 때 *<The Diary>*가 비로소 그 '심미성'을 획득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 심미성은 결코 쉽고, 간단한 방식을 통해 얻어낼 만한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음악적 표현력을 초탈해 전반적인 완성도 자체도 탄탄했고, 스카페이스의 래핑도 *Getto Boys*의 소년미와 1, 2집의 발전기를 거쳐 더욱 우려해졌다. *<The Diary>*에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길 만한 명벌스' 따위는 없지만 곡 수에 비해 평균점도 높고, 음악적 고점을 찍은 곡들도 많은 까닭이다. 물론 딘의 영화적 표현력도 빌려왔지만, 어디까지나 스카페이스 본인의 근본적인 프로덕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작품의 표현력과 래핑이 탄탄한 유기성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간혹 궁합이 아주 잘 맞는 래퍼와 프로듀서의 합작에도 필연적 '고유의 결합'이 등장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직접 송라이팅과 프로듀싱, 랩 파트 모두를 담당하는 올라운더 아티스트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런 올라운더 아티스트의 이름들을 나열할 때 스카페이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강렬한 문체를 가진 수수께끼의 사나이처럼, 그는 딱히 언론과 유명세를 배척한 것도 아니었던 2000년대 중후반에 급격히 희미해졌다. 그러니 *<The Diary>*라도 우리 앞에 남아, 저주받은 황금처럼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가끔 그 실력과 예술성에 비해 너무 박한 대우와 기억을 받는 아티스트들을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듈다.

앨범의 곡들 중에는 'G's'의 폭풍 같은 래핑도 좋아하고 'Hand of the Dead Body'의 장렬한 연출력도 좋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혼재된 *'The Diary'*가 가장 맘에 와닿는다. 그리고 'Mind Playin' Tricks 94'. 그래서인지 이 앨범은 여타 청각적 쾌감에 집중한 랩 앨범과는 달리—틀어놓고 천천히 음미해야만 그 진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만 같다. 사의식의 고고하고 침통한 석양이 흐르는 초저녁에, 에스프레소를 음미하며 앨범을 플레이해야만 비로소 본래의 *<The Diary>*가 될 수 있다 고 나는 생각한다. 모든 트랙들을 다 사랑하지만 'Hand of the Dead Body' – 'Mind Playin' Tricks 94' – 'The Diary'로 이어지는 앨범의 클라이맥스를 사랑하는 이유 또한 그와 관련되어있다. 가볍게 들을 때의 청각적 쾌감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집중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끝도없는 디테일과 음악적 수맥들이 수놓아져있다. 게다가 무엇보다 애상적이다. 이렇게까지 몸에 파고들면 더 이상 무어라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가끔 세계를 애통해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어째서 스카페이스는 지구 반대편의 청년에게, 경험해본 적도 없는 게토의 사의식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일까— 가끔 예술이란 것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EDITORS' PICKS

IT ME HARD AND SFT

Trent Reznor & Atticus Ross
<Challengers (Original Score)>



Destroy Lonely
<If Looks Could Kill>



TRACKS

1. Challengers / 2. "I Know" / 3. Yeah x10 / 4. L'oeuf / 5. The Signal / 6. Brutalizer / 7. Stopper / 8. Brutalizer 2 / 9. The Points That Matter / 10. Lullaby / 11. Final Set / 12. Pull Over / 13. Friday Afternoons, Op. 7: A New Year Carol / 14. Friday Afternoons, Op. 7: A New Year Carol (Part 2) / 15. Challengers: Match Point / 16. Compress / Repress

by Editor 김상주의

TRACKS

1. how u feel? / 2. if looks could kill / 3. fly sht / 4. which one / 5. raver / 6. came in wit / 7. by the pound / 8. all the time / 9. biggest problem / 10. chris paul / 11. superstar / 12. new new / 13. right now / 14. which way / 15. wagwan / 16. moment of silence / 17. crazy girls / 18. goin up / 19. passenger / 20. promo / 21. worth it / 22. redlight / 23. make sum work / 24. safety (interlude) / 25. your eyes / 26. money & sex

by Editor BlackMa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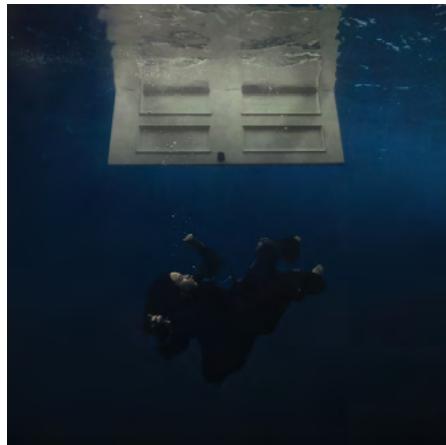
"테니스는 관계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 <챌린저스>에서 작품의 성질을 함축하는 표현이다. 어떤 의미로서의 '관계'를 일컬던 간에 매한가지다. 히로인 터시에 의해 발화된 이 대사로부터 영화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관계는 게임이다." 상호작용, 즉 "합을 주고받는다"라는 관계의 정의는 게임이란 특성을 만나 묘해진다. 경쟁이라는 개념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조화 안에서의 충돌이라는 모순적 성질이 거듭 발생할 때, 긴장과 이완이 유도된다. 이것이 격렬해질 때 우리는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카타르시스와 에로틱한 흥분을 체감하기에 이른다. 반복적인 밀고 당기기를 통한 서스펜션 및 빌드업은 곧 '테크노'의 근본적 성질이기도 하다. 스코어 담당 레즈노어(Trent Reznor)와 로스(Atticus Ross)는 이를 훠뚫고 댄스로 하여금 시청각을 매치시켰다. 캐치한 일렉트로클래시와 관능적인 추임새가 폐로문을 발현하면('Yeah x10', 'The Stopper'), 신호가 활성화된 자들의 리듬이 달라진다('The Signal', 'The Points That Matter'). 이후로 시작된 상대와의 신경전은('Brutalizer 1 & 2') 불안과 평온 간의 소강 상태에('Lullaby'~'Friday Afternoons') 접어드는가 싶더니, 이내 매치 포인트를 향해 쉴 새 없이 몰아붙인다('Challengers: Match Point'). 마침내 합을 완성한 피날레의 격한 환호는 찐한 포옹과도 같은 순간. 스포츠에, 사랑에, 시네마에, 삶의 모든 유희에 실컷 전율하고 도취하라!

OPIUM은 컨셉츄얼 뮤직을 표방한다. 설립자 Playboi Carti의 <Whole Lotta Red>, Ken Carson의 <A Great Chaos>와 Destroy Lonely의 첫 스튜디오 앨범 <If Looks Could Kill>은 모두 각자의 페르소나를 이용해 Rage라는 공통된 음악적 요소로 자신을 표현한다. 이 중 론리는 현실 속 자신의 관심사를 십분 반영해 호러 영화 속 빌런을 자신의 페르소나로 선택한다. Rick Owens 와 Balenciaga 등 고딕 또는 아방가르드 에스테틱을 지향하는 브랜드들의 검은색 옷만을 고집하는 그는 어둡고 신비주의적인 본인의 외형에 음악적 관심사를 결합하기도 한다. Deftones와 my bloody valentine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었던 론리는 밴드 음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강렬한 기타 사운드를 레이지와 혼합시켰고, 기존 레이지에서 신디사이저와 퓨쳐 베이스가 맡아왔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일렉 기타는 론리의 에스테틱을 성공적으로 청각화해냈다. 예상치 못한 장르의 결합이 만들어낸 어둡고 강렬한 사운드는 오피움의 강점인 비주얼라이징을 만나 더욱 꽂피웠다. 단편 영화 <Look Killa>와 "how u feel"은 본작의 제목이자 나체의 글에서 태어난 구절 'If looks could kill'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선만으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가면 쓴 빌런의 모습을 그려낸다. 과한 러닝타임과 스니펫 수준의 트랙들을 차치하더라도 론리와 본작이 컬트적인 인기를 얻는 이유는 바로 이 사운드와 유니크한 비주얼의 매력적인 시너지 때문일 것이다.

CONNIE
<Hi_TEK MZK VOL.1>



Billie Eilish
<HIT ME HARD AND SOFT>



TRACKS

1. FIRESTARTER / 2. GRFX88 (feat. RXKNephew) / 3. MERCURY / 4. GS1 / 5. PURPLE APE / 6. TRBO / 7. ELECTRO_SHOCK_THERAPY / 8. EURO.TEK

by Editor SongChico

TRACKS

1. SKINNY / 2. LUNCH / 3. CHIHIRO / 4. BIRDS OF A FEATHER / 5. WILDFLOWER / 6. THE GREATEST / 7. L'AMOUR DE MA VIE / 8. THE DINER / 9. BITTERSUIT / 10. BLUE

by Editor 자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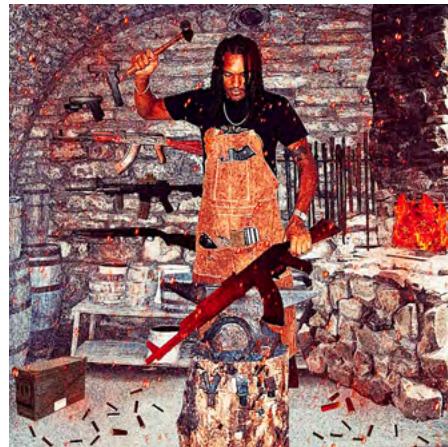
코니(CONNIE)는 JELEEL!의 바이럴 히트 'DIVE IN!'을 프로듀싱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Zack Fox, grouptherapy, BROCKHAMPTON 등 얼터너티브 사운드를 원하는 고객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작년엔 본격적인 솔로 커리어를 시작하며 COMPLEX에선 코니를 '주목할 만한 신인'으로 선정했다. 누군가의 프로듀서에서 어엿한 솔로 아티스트가 된 코니의 작품은 올해 발매된 그 어떤 힙합 앨범보다 거침없이 달려갔다. 경계를 무너뜨리고 감각이 이끄는 곳으로 밤을 디딘 사운드는 덥 스텝과 뉴로펑크, 인더스트리얼 등 강렬한 일렉트로닉 사운드에 가깝게 완성되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코니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게스트들 역시나 넘치는 에너지에 맞춰 맘껏 선을 넘나들며 큰 시너지를 냈다는 것이다. 결국엔 뱅어와 뱅어, 그리고 뱅어로 연결되는 작품이 완성되었다. 머지않아 그만의 독특한 사운드태그 없이, 에너지 가득한 사운드만으로 이 프로듀서의 작품임을 알아챌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다.

Kali Uchis, Ariana Grande, Beyoncé, Dua Lipa 등 여성 팝스타들이 줄줄이 컴백하고 있는 요즘이다. 이 흐름에 따라 Z세대의 아이콘과도 같은 아티스트, 빌리 아일리시(Billie Eilish) 역시 3년 만의 새로운 정규 앨범 <HIT ME HARD AND SOFT>로 오래간만에 얼굴을 비추었다. 필자는 그녀의 작품을 감상할 때마다 오직 본인과 그녀의 오빠 FINNEAS 둘만이 참여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에 자주 놀라곤 하는데, 이번 앨범 역시 마찬가지다. 언제나 그랬듯 훌륭한 송라이팅과 리릭시�心疼)을 보여주었으며, 심지어는 더욱 더 큰 발전을 이루어내었다. 자신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매우 노골적이고 덤덤하게 풀어나간 "LUNCH", 놀라운 발라드-신스 변주를 선보이는 "L'AMOUR DE MA VIE"가 특히 인상적이다. O'Connell 남매는 영원히 씻을 수 없을 것만 같던 '중2병 컨셉'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냄과 동시에, 한층 더 완숙해진 음악적 역량을 선보였다. <HIT ME HARD AND SOFT>는 완벽한 작품도 아니고, 새로운 세대를 정의하는 음반 역시 아니다. 그러나 본작이 완벽을 향한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작품임은 확실해 보인다. <HIT ME HARD AND SOFT>는 빌리 아일리시와 FINNEAS의 새로운 챕터, 그 서막을 여는 작품이다.

Young Fathers
<Heavy Heavy>



Hackle
<Gunsmith Tha Mixtape>



TRACKS

1. Rice / 2. I Saw / 3. Drum / 4. Tell Somebody / 5. Geronimo / 6. Shoot Me Down / 7. Ululation / 8. Sink Or Swim / 9. Holy Moly / 10. Be Your Lady

by Editor ryuzimoto

TRACKS

1. Gunsmith / 2. Nothing / 3. On Tha Mound / 4. Bakelite / 5. No Sight / 6. Dumbo (feat. Buckshot) / 7. Turnadraco (Turnabout Interlude) / 8. Trillion Bars / 9. Wanted Maniacs (feat. Turnabout) / 10. Now / 11. Tha Ground (feat. Sematary) / 12. Hackle

by Editor BlackMatter

'만물은 무성하지만, 제각각 자신의 뿌리로 돌아간다'. 이는 노자의 저서 도덕경에 나오는 문구 중 하나이자, 동시에 삼인조 밴드 영 파더스(Young Fathers)가 발매한 <Heavy Heavy>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문구이다. 이들은 앨범의 전반적인 사운드를 힙합, 소울, 노이즈팝, 가스펠, 트립합 등, 나열하면 수도 없이 많은 장르를 양분 삼아 블랙뮤직의 뿌리인 아프리칸 하모니로 완성시킨다. 이는 이질적인 소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코 아니다. 오히려 유쾌한 에너지의 화음에 가깝다. 이 같은 사운드 뿐 아니라 비쥬얼라이징 측면으로도 아주 뚜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시작과 끝, 이 짧은 33분 동안 아프리카의 풍경이 눈 앞에 펼쳐지는데 특히 7번 트랙 'Ululation'은 자신이 지금 속해있는 집단이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강력한 이끌림을 담고 있다. 이처럼 청각과 시각을 하나로 묶어낸 입체적인 프로덕션은 영기를 머금고 있는 활력을 그려낸다. 물론 콘셉트는 회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Heavy Heavy>는 23년도 발매된 모든 작품 중 가장 진보된 결과물이라 봐도 무방하다.

컨셉츄얼 앨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주얼라이징이다. 아티스트가 만들어 낸 페르소나를 표현해내기 위해 어떠한 음악적 장치와 앨범 커버를 채택하는지에 따라 설득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Haunted Mound 소속 래퍼 Hackle의 <Gunsmith Tha Mixtape>는 양측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성공한다. 호러코어 트랩 스타일로 대표되는 레이블의 특성에 알맞게 <Gunsmith Tha Mixtape>는 음산하고 과격한 사운드로 구성되어있다. 기관총이 연사되는 소리를 연상시키는 빠르고 강력한 드럼과 음산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신디사이저의 활용은 가사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겹쳐진다. 이는 변조된 해클의 래핑과 혼연일체로 어우러지며, 더해지는 낮은 톤의 시그니처 사운드 또한 무드와 캐릭터성의 생성을 돋는다. 건스미스라는 페르소나는 사운드뿐만 아니라 비주얼적 측면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화된 색조와 화질 속 총을 제작하고 있는 해클의 모습과 합성된 듯한 주변의 물체들은 고의적으로 낮은 해상도의 음질을 지향하는 호러코어의 사운드적 특성을 시각화하는 듯하다. "Gunsmith", "Nothing", "Bakelite" 세 곡의 뮤직 비디오 또한 같은 비주얼적 요소들로 불쾌하고 기괴한 분위기를 형성해낸다. 본작의 그로테스크하고 고어한 사운드와 비주얼이 이토록 매력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연 이 34분 간의 공감각적인 경험과 풍부하고 유니크한 사운드에서 오는 쾌감일 것이다.

**Recently Released**

자카, 감상주의, SongChico, Indie Aisle, denim,
BalckMatter

Full-Length Album Review

자카, SongChico, 예리

Classic Album Review

감상주의, ryuzimoto

Featured

BlackMatter, SNXO, Indie Aisle

Editors' Picks

감상주의, BlackMatter, SongChico, 자카,
ryuzimoto

Design

ikidkekwi



khlhomofficial@gmail.com
@hausofmatters